

한국체육의 새 지평 여는 우리 대학

장재인 편집장 202090032@m365.knsu.ac.kr

“계속해서 -80kg급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박우혁 학우(체육학과 태권도부 -80kg급 4학년)



박우혁 선수(좌측에서 두 번째)가 포디움에서 선수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Q. 202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의 금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저 혼자서 이룬 대회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대회보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Q. 이란의 바코르다리 메흐란 선수와의 준결승에서 1라운드 패배와 2라운드 큰 점수 차를 극복하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위기상황이었기에 쉽게 진정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나요?

일단 1라운드 패배했을 때 ‘2라운드를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2라운드를 들어갔어요. 2라운드 또한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많은 점수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진짜 여기서 끝나면 너무 후회하겠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폼이 아닌 다른 폼으로 바뀌서 경기에 임했는데 운이 좋게 성공해서 다행이었습니

Q. 결승전에서는 노련한 경기를 펼쳐 스페인의 존 신타도 아르테제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준결승 이후 심리

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준결승 경기가 끝나고 결승 상대가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차분하게 어떤 선수가 올라오는지 보고 있었어요. 결승이라 생각 안 하고 첫판, 한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던 대로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Q. -80kg급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체격 차이와 기량 상으로 ‘마의 체급’이라고 불려왔는데요. 1999년 이후 23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소감이 궁금합니다.

2019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등을 했을 때는 11년 만이라고 들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때 1등하고 난 후 23년 만에 금메달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 큰 영광이었고 그제야 1등을 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80kg급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Q. 경기 종료 이후 눈물을 흘리셨는데 당시 어떤 감정이었나요?

마냥 세계대회 1등이라는 큰 상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대회를 준비할 때는 ‘진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진짜 1등을 하니까 그 감정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Q. 2019 맨체스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하셨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경기력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훈련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투지와 정신력으로만 승부를 거

뤼다면, 이번 시합에서는 투지, 정신력에 더 해서 노련미, 그리고 힘들 때 더 집중한 것에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 때는 체력을 끌어올려서 힘들 때 발을 더 차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세계대회를 준비할 때는 전자호구를 착용하여 실전 겨루기를 통해 상황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4점 이기고 있는 상황’, ‘4점 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Q. 내년엔 ‘삼성 에스원’으로 입단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입단을 결정하게 되었나요?

정말 감사하게 많은 실업팀에서 스카우 제의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렸을 때부터 저의 로망이었던 삼성 에스원에서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또 고등학교 때 롤모델이었던 김훈 선수가 에스원 코치님으로 취임하셨어요. 제가 처음 선수촌에 들어갔을 때 어린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 저와 같은 체급이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감독님 또한 선수들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좋으시기에 에스원에 입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대회에 함께 출전한 우리 대학 선수들이 함께 격려하고 힘이 되었을 거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준이(장준 - 체육학과 태권도부 4학년)와는 두 번째 같이 가는 세계대회였습니다. 첫 세계대회에서는 제가 준결승에서 지고 워밍업 장에 올라와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결승 경기가 끝나고 준이가 대기실로 내려와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같이 출전한 도윤이, 유진이와도 서로에게 응원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Q. 유튜브 ‘우력tv’를 운영하는 유튜브이시기도 하던데요. 간단한 채널 소개와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나오고 선수촌에 거의 갇혀 생활했는데 그 당시 대훈이 형(이대훈 - 전 태권도선수)과 재미 삼아 유튜브를 해보자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추억이 될 만한 영상들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 등 앞으로 있을 여러 대회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시안게임도 파리 올림픽도 정말 저에게 중요한 최종 목표들이지만, 우선 내년에 있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올인해서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아시안게임,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목표는 아시안게임 1등, 파리 올림픽 출전하여 1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한국체대 학우들과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따로 없고 모자란 사람 따로 없으니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십시오 보면 언제 어디서든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그게 운이아도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남았다. 무조건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했어요”

권도윤 학우(체육학과 태권도부 -68kg급 2학년)



권도윤 선수가 우승 후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Q. 202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의 금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래 선수권대회가 작년에 있어야 했는데 미뤄져서 준비 기간이 1년 더 생겼게 되었어요. 준비 기간이 길어진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1등을 한 거 같습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서 보람이 큼니다.

Q. 초반인 32강에서부터 랭킹 3위와 경기를 펼치셨는데요. 걱정이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대진표는 시드 배정을 따라요. 나온 사람 중에서 랭킹이 낮은 선수는 판수가 많아지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선수 랭킹이 낮아서 두 번째 판에는 실력 있는 선수를 만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괜찮았던 거 같아요. 오히려 첫판에 저랑 비슷한 랭킹의 선수와 시합했는데 너무 큰 대회라 긴장을 많이 해

서 제일 힘들게 이겼었어요.

Q. 심지어 결승에서는 랭킹 1위인 영국의 브래들리 신든 선수와의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마저도 전부 2대0으로 승리했는데, 특별한 비법이나 마음가짐이 있었나요?

일단 준결승 끝나고 한 10분 정도 쉬고 바로 결승전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였는데 금메달이랑 은메달의 차이가 너무 큰 의미를 지니잖아요. ‘하나 남았다. 무조건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했어요. 또 체력도 없으니까 2회전 안에 끝내자고 마음먹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Q.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는데 불과 1달 뒤 월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전국체전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어

요. 몸무게를 맞추지 못해서 한 5일 정도를 굶어서 살을 뺐어요.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먹어도 회복이 되질 않더라요. 결국, 그렇게 체전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선수권대회를 준비할 때는 미리 한국에서 빼고 가자고 마음먹고 잘 준비하니까 이런 결과를 이룬 거 같아요. 경기력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대학 선배이자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헤리 코치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코치님이 그냥 하고 싶은거 다하고 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승전 때 금메달과 은메달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중하라고 말씀해주셨어요.

Q. 함께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우리 대학 선배들이었을 텐데요. 어떤 조언을 들었나요?

제가 첫 경기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형들이 혼내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해줬어요. 제가 랭킹이 140등 정도였는데, ‘너 잃을 거 없다. 긴장하지 말고 국내 대회처럼 하던 대로 해라’고 하면서요.

Q. 자신의 경기 운영 방식이나 특기는 무엇인가요?

방어 위주로 경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실점을 최대한 줄이고 쓸데없는 동작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공격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공격하고요.

Q. 한국체대 동기나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같이 안 다치게 열심히 준비해서 메달 다 휩쓸어버리자고 말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로 한국 수영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백인철 학우(체육학과 수영부 4학년)



백인철 선수는 접영 50m 한국신기록을 달성해 포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된다.

Q. 먼저,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접영 50m 우승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훈련했는데 마지막 시기에 좋게 마무리를 맺은 거 같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치리라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조교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Q. 남자 접영 50m에서 ‘23초 67’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셨는데요.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전혀 한국 신기록을 기대했던 대회가 아니었고 레이스에 좀 더 신경을 써보자 했던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신기록을 수립

하게 되어 알뜰했던 기분이었습니다.

Q.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포상금 대부분을 수영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데에 썼습니다.

Q. 선발전에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셨나요?

전국체전 이후라서 마음 편하게 뛸 수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때 했던 실수만 바로 잡고 레이스에 집중해서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Q. 수영 종목 중 접영 50m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영을 오래 하다 보니 제게 재능이 있는 종목을 점점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개인혼영을 했지만 다른 종목도 뛰어보며 제가 접영 50m에서 가장 높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 본인만의 접영 노하우가 있는지, 본인의 무엇이 장점인지 궁금합니다.

제 장점은 몸이 가볍고 순발력이 좋아서 레이스를 하는 데 감정이 있습니다. 제 접영 노하우라기보다 접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물을 잡는 ‘캐치’ 동작과 접영 킥의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수영 국가대표로서 앞으로의 다짐이나 목표가 무엇인가요?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어 한국 수영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